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5월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사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겠다”

모든 부처·부서 기술직 50%까지 늘릴 것이다

주제발표 | 이만기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인력국장



21세기는 사회구조, 생활양식에
서부터 가치관의 변화에 이르
기까지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
는 시대라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변화
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으며 경제
발전, 국방, 환경, 보건, 교통, 사회복
지 등 국가 주요 사안들의 근간을 이루
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과거의 'Policy for Science'라는 말
은 'Science for Policy'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
부에서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12대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적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과학기
술직 공무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이공계를
전공으로 한 우수인력의 공직진출 확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이공계 출신의 진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술직 공무원 임용 부처 및 임용 직위가 한정되어 있
고 ▲복수 직위제도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
적되고 있다.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부처가 과학기술부·건설교통부 등 일
부 부처에 한정되어 있고, 주요 정책결정 부처에는 고위 기술직
공무원 직위 조차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공계 전공자의 관리직공무원(5급)에 진출하는 문호도 매우
협소하다. 지난 '81년부터 2002년까지 고시 선발인원은 기술고
시 972명, 행정고시 3,966명이었고 금년도 선발예정인원은 기
술고시 62명, 행정고시 210명으로 기술고시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 현행 기술고시 제도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

반사회의 새로운 행정수요 및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에 어려움이 많다.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출신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해 몇가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행정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과학기술 전공자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역할을 증
대하므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술직 임용 부처 및 보임 직위 확
대 ▲복수직위제 개선 ▲기술고시 채용규모의 확대 ▲기술직
직군·직렬의 축소 조정 ▲기술고시제도의 개선 ▲이공계 전공
자 공직진출시 우대 등 6가지 추진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로, 기술직 공무원 임용부처 및 보임직위를 확대 방안은
기술고시합격자를 임용하는 부처를 크게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둘째로, 복수직위제의 개선 방안은 기술직 임용 비율을 50%
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행정직 중심의 중앙부처
국·과장급 직위를 균형 있게 복수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사,
기획 및 예산담당부서 등 주요부서 직위를 복수직화하기로 하
였다.

셋째로, 기술고시 채용규모의 확대방안은 단기적으로 행정고
시 채용인원의 기술직 비율은 40~50% 수준으로 하되 장기적으
로 50:5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현행 기술직의 직군·직렬(8직군
38직렬)을 조정하므로써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 유동성 및 업무
역량 확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기술고시제도 개선방안은 세분화된 기술고시 시험
과목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기술고시와 행정고시의 통합을 검
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